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강 진 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패러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나 라

패러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박 나 라

인 준 서

박나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

심사위원장 ( )

심사위원장 (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문 초 록

본고에서는 만들어진 해설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길들여진 학습자에게 창의적인 수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해줄 방법으로 패러디를 활용해 보고자하였다.

7차 교육과정부터 문학 생산교육이 대두됨에 따라 문학을 생산하는 방법의 하나로 패러디 활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판적 · 창조적 재구성'으로 구현되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 교과서에 구현된 재구성 활동이 시 장르 교육에 치우쳐있고 소설을 활용하여 재구성 활동을 구현한 교과서에서 또한 소설을 재생산하여 쓰는 활동이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재구성 활동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패러디의 개념과 패러디 의사소통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패러디의 시대적 전환 사고를 통해 패러디된 텍스트 「허생의 처」를 통해 원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간의 거리를 거쳐 사회적 · 문화적 상황에 따라 문학이 재해석 될 수 있음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새롭게 대두된 문학 창작 교육과 '비판적 · 창조적 재구성'이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밝혀내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검정된 문학Ⅰ교과서에서 구현된 양상을 '목표별', '갈래별'로 나누어 보았고 13종 교과서 중 소설을 제재로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가 함께 제시되어 재구성 활동을 구현하고 있는 지학사(권)의 학습활동을 문학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습활동 분석을 통해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를 학습한 학습자는 '작가 - 독자'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패러디 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독자 - 독자'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활동이 없는 것을 한계점으로 삼았다.

이에 Ⅳ장에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토대로 실제 수업에서 패러디텍스트를 수용하고 학습자간의 토의 활동을 통해 공동 창작으로 이어 쓰기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문학 생산 능력을 중요시함에 있어 교과서에 구현된 문학 생산 활동은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실제 '문학 생산'이다.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의 재구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 생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문학 생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패러디의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재구성 활동을 통해 함양된 문학 생산 능력이 기존의 문학 작품을 모방하여 생산한 재구성 활동에서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학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목표 아래 구현된 교과서 활동들이 생산 활동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 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범위 및 방법 ―――― 7

Ⅱ. 패러디와 문학
1. 패러디의 개념 ―――― 9
2. 패러디 문학의 의사소통 양상 ―――― 11
3. 패러디 문학 읽기의 실제 ―――― 13

Ⅲ.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
1. 교육과정과 문학교육 ―――― 19
2. 문학 교과서와 패러디의 구현양상―――― 23

Ⅳ.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교육의 실제
1.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적 의사소통 교수 · 학습 모형 ―――― 34
2. 교수 · 학습 지도안 ―――― 36

Ⅲ. 결론 ―――― 39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7차 교육과정 문학 내용 체계 ——— 20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 내용 체계 ——— 21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내용 체계 ——— 22
<표 4> 교과서별 '재구성' 단원 체계 ——— 24
<표 5> 지학사(권) 학습활동 다가서기 ——— 27
<표 6> 지학사(권) 학습활동 깊게 이해하기 ——— 28
<표 7> 지학사(권) 학습활동 넓게 생각하기 ——— 29
<표 8> 지학사(권) 학습활동 넓게 생각하기 ——— 30
<표 9>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적 의사소통 교수 · 학습 모형 ——— 35
<표 10> 반응 중심 모형을 적용한 교수 · 학습 지도안 ——— 36

<그림 1> 패러디의 의사소통 모델 ——— 12
<그림 2> 교과서 활동위계에 따른 패러디의 의사소통 모델 ——— 31

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과 영화나 TV드라마, 광고의 분야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작품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터넷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현상 및 정치 분야의 패러디도 TV방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패러디는 현대인이 문화를 소통하는 방식이라 일컬을 수 있겠다. 문학의 작품 패러디의 경우 매체의 발달에 의해 활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문학 작품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학 작품이 영화 혹은 희곡으로 재생산되어 보다 많은 대중들이 접할 수 있고 타 장르로 패러디 되어 사고와 시각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패러디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학문 분야에서도 패러디에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학 교육의 경우 가치관 중심의 문학 교육, 텍스트 중심의 문학 교육을 거쳐 최근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강조함에 있어 문학 교육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생산과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교사 중심의 문학 작품 이해와 감상에서 학습자 활동 중심의 문학 교육의 시대가 도래 하였으나 학습자은 글을 쓰는 자체를 어렵게 느끼고 있어 문학 생산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을 심미적인 시각으로 감상하는 것보다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문항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문학 작품 읽기에 흥미를 느끼

지 못하고 작품을 읽지 않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만들어진 해설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길들여진 학습자에게 창의적인 수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해줄 방법으로 패러디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패러디는 학습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기법으로서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은 문학 생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동기유발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패러디는 원작을 충실히 이해한 후 가능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원작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한다. 패러디를 통해 문학을 직접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생각하는 언어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며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현재 교육과정이 비판적·창의적인 수용과 생산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패러디 활동은 효과적인 수용과 생산 활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습현장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패러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생산 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는 문학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교육과 감상과 창작의 균형 있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김상욱은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나 시각이지 구체적인 작품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을 총 4단계로 설정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둘째, '문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문학 작품의 분석과 해석에 활용한다.' 셋째, '문학 작품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상상력을 확대하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 넷째, '문학과 한국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한국문학이 세계문학과 맺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1]

한편, 신헌재는 앞으로 바람직한 문학교육 내용 선정을 위해서는 문학텍스트 요인이나 사회 문화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문학 체험의 실태를 살펴내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타당성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 있다. 문학 체험을 <아는 것>, <하는 것>, <느끼는 것>, <다시 아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

그리고 임성규는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형식주의에의 집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밝히고, 수용학습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 흐름을 수용과 생산의 균형 있는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한 포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수-학습의 실천을 견인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언급하였다.[3]

김미영은 소설교육의 시각에서 최인훈의 『옹고집뎐』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소설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텍스트를 패러디 읽기로 학습하고 직접 활동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 창조와 조별 학습을 통해 패러디 텍스트를 생산한 뒤 토론학습으로 이어지는 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패러디 텍스트를 활용한 소설 쓰기를 통해 학습자의 자아정체성을 찾고 새

1) 김상욱,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그 조직화」, 『한국초등국어교육』, 17, 2000
2) 신헌재, 「문학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대안적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 19, 2006
3) 임성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24, 2007

로운 인물 창조를 통해 본인의 자아를 비춰볼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4)]

이연승은 문학작품이 다른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작품들 간의 관계성과 연속성은 장르가 해체되어도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장르 해체 시를 원전을 차용한 패러디와 패스티쉬하여 패러디한 유형으로 나누었다. 장르 해체 된 시를 학습함으로서 시 읽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면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장르해체 시 읽기를 통해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규원의 작품에 한정하여 장르 해체 시 읽기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는 학습현장에서 이 텍스트들이 적절한 제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5)]

장창영은 패러디를 창출하는 단초를 원텍스트에 대한 모방이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원천 작업으로 모방을 지칭하였다. 모방은 이전 세계를 답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으로 패러디 자체를 문학감상과 창작의 방식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패러디 작품이 원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다는 것을 밝혔다. 패러디 작품을 시 교육에 활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기대 효과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패러디 글쓰기가 겪고 있는 변화가 학습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변화와 함께 패러디 텍스트를 통한 시 교육이 문학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문학 장르의 시사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의의를 갖는다.[6)]

조광국은 문학 교과서에 구현된 패러디 활동이 모방적 패러디 위주, 표절

---

4) 김미영, 「패러디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5) 이연승, 「장르 해체 현상을 활용한 시교육 방법 연구」, 『한국시학연구』, 16, 한국시학회, 2006
6) 장창영, 「패러디 시 활용의 교육적 의미」, 『디지털 문화와 문학교육』,글누림, 2009

행위 조장 우려, 상호텍스트성과 창의성 간과 우려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입장에서 문학 9종 교과서의 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방적 패러디와 비판적 패러디 유형의 균형과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의 필요성, 원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의 이해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 활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학습자가 패러디를 통한 학습을 할 때 교과서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드러낸 점이 의의를 갖는다.[7)]

성명진은 70년 이후에 발표된 현대시를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의 양상을 분류하였다. 원텍스트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태도를 바탕으로 계승적 패러디, 비판적 패러디, 혼성모방적 패러디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문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패러디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8)]

이인화는 서사교육이 이해와 표현의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서사교육의 목적은 대화적 의사소통과 능동적인 표현활동을 추구한다는 데에서 실천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패러디를 통한 서사표현이 효과적이며, 패러디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비평적 사고를 통한 패러디의 대상과 방향의 설정 그리고 패러디 경험에 대한 반성적 자기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실천과정에서는 효과적인 실천 기법을 소개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9)]

이미라는「디지털 구보 2011」을 대상 텍스트로 기존에 「디지털 구보 2011」를 하이퍼텍스트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구보계 소설'로 보고 「디지털 구보 2011」에 나타난 패러디의 양상을 전통계승과 창의적 수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문학의 창의적 수용과 창작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창작교육의 일환으로 패러디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패러디 창작의 원

7) 조광국, 「문학 교과 패러디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8) 성명진,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9) 이인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리로 ‘상호텍스트성과 낯설게 하기’, ‘대화성과 지평 전환하기’, ‘메타픽션과 자기 반영하기’를 들고, 이를 반영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10]

곽정아는 패러디를 활용한 시 교육이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자 전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리로서 ‘창조적 모방’, ‘비판적 사고력’, ‘문학적 소통’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11]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과 수용, 생산의 균형 있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최근 연구 흐름과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의 연구를 살펴볼 때, 학습자의 능동적인 생산능력을 중점으로 효과적인 생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나 학생들이 창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패러디 기법을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 방법을 제안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몇의 연구에서는 대상 텍스트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순기능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교과서에서 구현된 텍스트 및 활동과는 별개로 교수-학습에 관한 지도안이 제시되어 실제 수업에 적용되기에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

패러디를 통한 문학 교육은 시 장르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교과서 또한 시를 패러디 하는 활동이 많은 비중으로 구현되었는데 소설에 비해 짧은 시를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주어 바꿔 쓰기가 수월한 장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상에서 소설을 활용한 패러디는 소설을 희곡의 갈래로 바꾸어 쓴다거나 소설을 원텍스트로 삼은 패러디 시를 통해

---

10) 이미라, 「문학의 창의적 수용 및 창작 교육적 연구: 『디지털 구보, 2001』의 패러디 양상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 곽정아, 「패러디를 활용한 수용과 생산의 통합 시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교과서에 구현된 텍스트 및 활동과 별개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 장르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구현된 텍스트를 선정하여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이 소설 장르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활동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선택과목 문학의 내용에서 패러디 활동을 담고 있는 성취기준은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12]한다.'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된 교과서는 총 13종[13]으로 각각의 교과서는 같은 성취기준 아래 다양한 제재와 활동으로 재구성 활동을 구현하고 있다. 13종의 교과서 중 시 장르 제재를 통해 재구성 활동을 구현한 교과서는 9종[14], 소설 장르의 제재를 통해 재구성 활동을 구현한 교과서는 총 7종[15]으로 시 장르의 재구성 활동의 비중이 높았으며 소설 장르 제재를 활용한 교과서 중 5종[16]은 원작을 타 장르로 재구성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원

12)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활동은 '패러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작을 전재로 내용, 형식, 표현, 갈래,등을 바꾸는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패러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조광국:2012)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제시한 '패러디'에 해당되는 활동을 '재구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3) 천재문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비상교평, 신사고, 미래앤, 지학사(권), 창비, 교학사, 교학도서, 비상교육, 지학사(최), 해냄에듀

14) 천재문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신사고, 미래앤, 교학사, 교학도서, 지학사(최), 해냄에듀

15) 천재문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비상교평, 미래앤, 지학사(권), 교학사

16) 천재문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비상교평, 미래앤,

작 소설을 학습자의 본인의 맥락과 표현으로 재구성 해보는 활동을 담고 있는 교과서는 1종[17]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이에 본고는 문학 교과서에서 소설을 제재로 재구성 활동을 다루고 있는 3종의 교과서 중 원텍스트 박지원의「허생전」과 패러디텍스트 이남희 「허생의 처」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지학사(권영민 외)의 학습 활동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학습활동을 재구성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이에 Ⅱ장 이론적 고찰에서 패러디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현대문학에서 패러디 장르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에 있어서 패러디의 소통구조와 실제 패러디 소설 읽기를 통해 패러디텍스트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패러디를 활용한 교육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 내용을 토대로 13종 문학 교과서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재구성 활동이 구현된 양상을 제시하고 앞서 언급한 지학사(권)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학습활동 재구성을 통해 제시하고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의 지도 방안을 교수-학습 지도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17) 지학사(권)
교학사 문학Ⅰ에서 소설 제재를 재구성하는 활동은 소설 창작 연습의 방법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도록 한다.

Ⅱ. 패러디와 문학

1. 패러디의 개념

패러디는 고대 그리스어인 ‘parodia’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파생적인 노래(counter-song)’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학에서 패러디는 19세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현상으로 등장하여 현재는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패러디 작품들은 권위적인 것에 대한 냉소와 도전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기에 비판이나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처음 등장했을 때 좁은 의미의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복제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풍자적 모방’을 의미하였다. 즉, 가장 일반적으로는 원작의 풍자적 모방, 또는 희극적 개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패러디가 현대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조롱이나 모방이 아닌 ‘반복’과 ‘다름’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다. Hutchen(1998)은 「패러디이론」에서 패러디는 아이러닉한 '초맥락성'과 '전도'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 반복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의 차이는 비평적 거리를 의미하며, 그녀는 비평적 거리가 패러디 작가의 창조성과 작품의 당대를 향한 의도를 명확히 해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패러디가 이전의 작품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전도시키는 것을 초맥락화(trans-contextualization)라고 하였다[18] 즉, 광의의 패러디의 개념은 과거

18) Hutchen, L. 『패러디이론(김상구·윤여복 역)』, 문예출판사. p64, 1998.

의 문학작품이나 관습에 되비추어봄으로써 문학 형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폭넓은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19]

넓은 의미의 패러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있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말한다.[20] 상호텍스트성의 근원은 Bakhtin의 대화이론에서 시작된다. 그는 개개의 언술들 사이의 관계를 대화이론으로 지칭하고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문학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는 작가는 동시에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독자로 보았으며, 모든 작가는 텍스트를 창작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먼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21]

Kristeva는 Bakhtin의 대화이론을 상호텍스트성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Kristeva는 한 발화가 화자(작가)나 청자(독자) 또는 다른 발화와 맺고 있는 관계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관계란 발화가 화자와 청자가 맺는 관계를 가리키며, 수직적 관계란 발화가 그 이전 또는 동시대적인 다른 발화와 맺는 관계를 말한다. 그녀는 발화의 수직적 관계를 가리켜 상호텍스트성이라고 했다. "모든 텍스트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여러 인용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들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2]

패러디가 성립하는 필요충분조건은 패러디 된 작품(원전)과 패러디 한 작품의 이중구조이다. 이것은 패러디스트가 원전의 독자이자 패러디 한 작품의

---

19) 정끝별, 한국현대시의 패러디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1996.

20) Kristeva, J,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p65, 1980. 강유경, 「서울 1964 겨울」의 패러디 소설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2010.

21) Bakhtin, M. M.,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6., 1986. 손화영(2001).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적 상호텍스트성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22) Kristeva, J, Op. Cit., p. 47, 1980 ; 이록호(1998).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육 방법론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작자라는 이중적 지위와 상응한다. 그래서 패러디는 원전에 대한 모방의 형식이면서 해석의 형식이고, 동시에 비평의 형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바로 상호텍스트성이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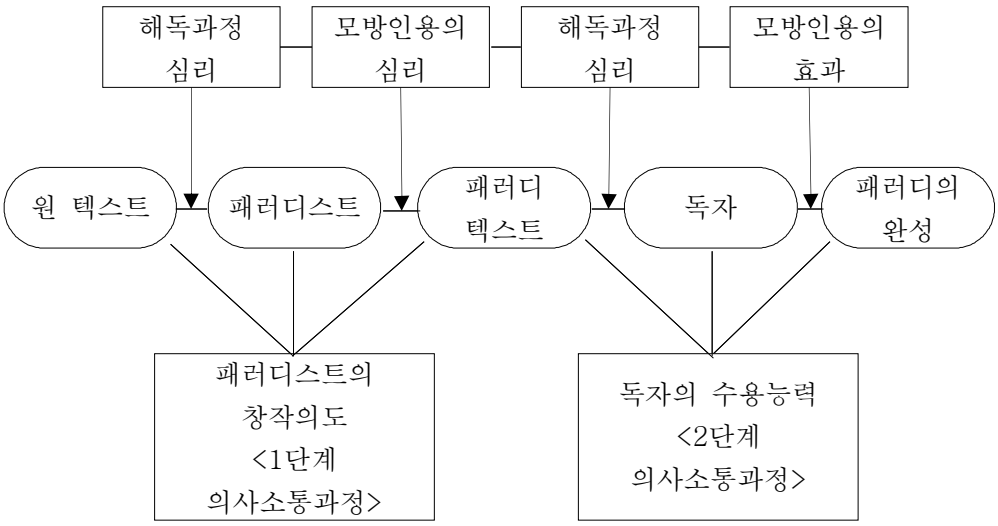
상호텍스트성은 무엇보다 장르 혼합의 복잡한 장르적 상호작용, 그 자체가 이미 상호텍스트적인 것이다. 장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호텍스트적 패러디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패러디의 대표적 변형이다. 문학 장르는 개별 작품으로 재생되거나 변형되고 그것은 과거를 당대적인 것으로 새롭게 하면서 과거를 보존한다. 당대화 또는 현대화에 의한 과거 보존, 이것이 문학 장르의 기능인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성으로 환원된다. 상호텍스트적 패러디는 장르적 관습의 저장고이면서 장르들이 지속성과 함께 변화성을 획득하도록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패러디는 문학 체계의 진정한 동력이 표현되는 표본적 장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24]

2. 패러디 문학의 의사소통 양상

패러디 문학은 두 단계의 의사소통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차 단계에서 의사소통과정은 원 텍스트와 패러디스트와의 관계이고 2차 단계 소통과정은 패러디 텍스트와 독자와의 관계이다. 이로서 패러디스트는 독자와 저자라는 이중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곧 원텍스트의 해독자이면서 동시에 패러디 텍스트의 새로운 약호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가 가진 비평과 창조의 기

23) 김준오,「시론」, 『삼지원』, p240, 1997.
24) Dane, J. A, *Parod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8, 1988. ; 손화영(2001), 위의 논문, pp16~17.

능은 이 과정에서 발휘된다. 그리고 패러디의 수용 주체인 독자는 원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서 대화성을 감지할 수 있는 해독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독자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원텍스트와 새롭게 동기화된 패러디 텍스트가 동화와 이화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 변화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그림 1).[25]



<그림 1> 패러디의 의사소통 모델

<그림 1>에서 패러디 의사소통의 근간을 이루는 '작가-패러디텍스트-독자'의 세 요소는 각각 '패러디의 창조성-작품의 구조적 미학-독서현상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 1단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원텍스트는 패러디텍스트의 해독과정의 심리가 결합되어 패러디스트에 의해 해독된다. 이렇게 해독된 의미에 패러디스트의 모방 인용심리 즉, 패러디의 창작동기가 첨가되어 패러디스트에 의도된 의미체계로서의 패러디텍스트가 생산된다. 여기에서는

25) 정끝별(1996). 앞의 논문. p26

원텍스트에 대한 패러디스트의 해독과정의 심리와 모방인용심리가 주로 작용한다. 제 2단계 의사소통과정은 패러디스트가 여기저기 숨겨놓은 단서들을 재조합하고 구조화함으로써 독자가 패러디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해내는 과정이다. 구현된 패러디텍스트의 의미는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해독과정의 심리를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수용된 의미체계로 완성된다. 패러디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해독과정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원텍스트의 의미와 패러디텍스트에 구현된 의미를 함께 읽어냈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3. 패러디 문학 읽기의 실제

패러디 의사소통 과정에서 패러디스트가 원텍스트를 해독하고 모방인용의 심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패러디텍스트가 생산된다. 이때 패러디스트의 발상의 전환에서 창작관이나 가치관이 적용되어 새로운 맥락으로 구현된다. 발상 전환을 통한 재구성은 서사 텍스트의 내용을 주체의 관점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서사 텍스트가 열어 보이는 세계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유지하면서 사건의 인과 관계, 인물의 성격 등에 변화를 주어 그 의미를 넓히는 것이다.[26]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타나는 허생은 머리는 총명하지만 조정에 나가 정사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고압적이고 본인의 길을 가는 선비로 나타난다. 반면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봉건주의 사상에 얽매어 있는 가부장적인 남자로 표현되는데 이는 이남희의 「허생의 처」가 원텍스트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텍스

26) 이인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34

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문학 작품에서 전통 속에서 거부당하고, 은폐되었으며,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삶을 들추어내고 여성 삶에 페미니즘적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의 재조작과 패러디의 본질적 의미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한 「허생의 처」는 「허생전」에서 서술된 이후의 허생과 허생의 처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27]

「허생전」에서 허생의 처를 언급한 부분은 굶주림을 참지 못한 허생의 처가 책을 그만 읽고 공장이나 장사치, 도둑질이라도 해보라며 불평하는 부분, 허생이 집을 비운 5년간 남편이 집을 나간 날마다 제사상을 차린다는 두 부분인데 반해 「허생의 처」에서는 그녀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상과 남편을 기다리며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이 허생에서 허생의 처로 전환되어 그녀의 삶에 주목하여 전개되지만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이행한 시대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소설의 배경은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지만 허생의 처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비판하며 현대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생의 처」에서 어머니, 서모, 여동생, 시할머니, 4명의 새로운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병자호란 때 자결한 어머니, 선비에게 시집가는 허생의 처를 부러워한 여동생, 허생이 밖으로 나돌고 자식 하나 없는 것이 허생의 처 탓이라는 시할머니 이들 셋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는 여성 인물에 해당된다.

> “만일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자결하는 게 좋겠소.”
> 끔찍한 말씀이었으나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끄덕이셨다.
> “알고 있습니다. 전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 당신은 윤복이를 잘 보호하여 이 집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요.”
> 윤복이는 서모가 낳은 남동생이었다.

---

27) 송경빈, 「패로디와 현대소설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9, p175

어머니는 서모와 나에게, 되도록 옷을 잔뜩 껴입고 은냥이며 패물을 약간씩 몸에 지니라고 이르셨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자결하는 것이 양반집 부녀자의 도리라고 하셨다. 옛날 남쪽에서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손목을 잡힌 것만으로도 수치를 느껴 강에 몸을 던진 여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전란을 겪었지만 여자들이 한결같이 정조를 굳게 지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예의지국이란 칭송을 얻은 것이다." …(중략)… 어머니는 슬그머니 마당귀로 가시더니 머리를 주춧돌에 짓찧었다. 피가 여러 말 흘렀으나 그러고도 오히려 숨은 붙어 있었다. …(중략)… 훗날 서모를 볼 때면 그 광경이 선언하여 도무지 마음이 편칠 않았다. 물론 그건 서모의 허물이 아니었다. 굳이 따진다면 다른 곳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다물었다. 서모는 속환된 후 나를 보자 서럽게 울기만 했다. [28]

허생의 처는 과거 회상을 통해 병자호란 때 양반집 부녀자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결한 어머니와 갖은 수모를 겪고 조선으로 돌아와 자식을 돌보는 서모의 삶을 돌아본다. 왜적에게 손목만 잡혀도 수치심을 느껴 강물에 빠져 죽는 당대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자식 앞에서 자결한 어머니의 모습은 당시 보편화된 여성 삶의 방식을 택했지만 서모가 택한 삶의 방식은 자식과 집안을 돌보는 실질적인 삶에 해당된다. 허생의 처는 이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다.

바가지를 긁는다고 분연히 책을 덮고 나가 버린 후 오 년 동안 나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지냈었다. 굶기를 밥먹듯 하며 무작정 기다렸었다. 들어오면 밥이라도 한 술 해주려고 입쌀을 구해 두기도 했고, 매일 사랑방을 청소하고 간간이 불도 때었고, 장마철 전후로 서책을 바람쐬어 말려 두고, 의복도

28) 이미란, 「한국 현대 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부록 pp324~5.

금방이라도 입을 수 있게 매만져 두었었다. 내년까지 소식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야겠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나 다름없이 해 두었다. 다 어머님이 가르치신 바였다. 어쨌든 남편이었고, 살아 있다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었고, 난 기다릴 도리밖에 없었다.[29]

책만 읽는다는 성화에 집을 나간 남편을 궁핍한 생활 속에서 무작정 기다린 이유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여자의 도리라는 것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지속된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허생의 처는 남편이 집을 나가도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집을 나가도 부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현실에 존재했다. 하지만 5년만에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온 허생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지 않자 허생을 기다리던 세월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허생의 무능력함에 대한 회의를 통해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가치관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편은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몰라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30]

허생의 처에서 '나'는 자결한 어머니와 서모의 삶의 태도 비교와 남편을 기다리며 지낸 날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과 남편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 허생이 대외적으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 일컬어지지만 오랜 시간 경제적 무능함을 겪었으며 남편이 집에 나가 지내는 동안 기본적인 삶의 보호조차 되지 않는 생활을 통해 남편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기 시작한

29) 29) 이미란, 「한국 현대 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부록 p330.
30) 이미란, 「한국 현대 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부록 p338.

다. 이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은 여성적인 삶을 부정하고 자신이 주체가 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절연을 고한다.

> “기다리는게 부녀의 아름다운 덕이오.”
> “덕요? 난 꼬박 오년이나 당신을 기다렸지요. 그 전엔 굶기를 밥먹듯 한 것이 몇해였지요?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내 두팔이 바삐움직이고 두눈이 호롱불빛에 짓물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 뭔가요?앞으로도 뒤로도 어둠뿐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유유자적 더러운 세상을 경멸하며 가슴에 품은 경륜을 뽐낼뿐이지요. (중략)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십년이나 기약하고 독서했지요? 당신은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때문이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꼭 할 거예요…….”[31]

차라리 팔자를 고치겠다고 말하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에 허생은 사대부집 아녀자의 도리를 운운하며 반대한다. 그가 말하는 기다리는 것은 남편의 말에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을 말하지만 허생의 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 '절연'을 통해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허생이 선비된 자로서 학문에 몰두하지만 가족조차 돌보지 않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여성의 수동적인 모습만 강요하는 삶을 비판하고 저항하기 위해 주인공 '나'는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남희 「허생의 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의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원텍스트 「허생전」에서 허생이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선비의 모습으로 그러졌다면 그 뒤에서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허생의 처와 그 주변의 여성 인물을 등장시켜 그 인물들을 통해 전통적인

31) 이미란, 「한국 현대 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 1999, 부록 p340.

삶에 반대하는 삶을 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전적인 모습의 남성중심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자 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자세를 그려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패러디 텍스트에서 새로운 인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패러디는 그 과정 장체가 인식의 능력과 비판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내는 주체의 적극적인 표현활동으로서 무언가를 패러디하려면 먼저 모방하려는 대상의 수용을 기반으로 한다. 패러디 작품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 이해는 다른 관점에서 원텍스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패러디를 거쳐 원텍스트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나타날 때 작품특유의 개성과 가치를 재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패러디텍스트 「허생의 처」는 여성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통찰하여 여성의 삶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관점을 비교할 수 있고 다시 자신의 주변 상황에 맞게 재해석 될 수 있다. 자신에 상황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를 패러디 활동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Ⅲ.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

1. 교육과정과 문학교육

창작 교육이 대두된 것은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다.[32]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문학'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주된 목적이 문학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있다고 보고 국어과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 과정은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에서 '문학의 창작'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문학 작품 향유의 질을 높이는 교육 활동을 강조하였다. 즉, 문학 영역의 교수 학습이 문학 또는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과 기성의 문학적 해석을 단순 수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이 되어있지 않고,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과 비평 활동을 강조하여 문학적 목적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2) 제6차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의 주안점이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작품의 수용과 창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 4차~6차까지 금기시하였던 창작을 문학 과목의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인제 외, 1997: 187) 김창원, 「' 술이불작 (述而不作) ' 에 관한 질문 ; 창작 개념의 확장과 창작 교육의 방향」,『문학교육학』 , 2, p1

<표 1> 7차 교육과정 문학 내용체계[33]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의 수용을 통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해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서 문학 활동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직접 문학 작품을 창작하여 통합적인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용 - 재구성 - 창작활동이 위계적으로 설정되어있다. 이 때 문학의 재구성은 작품의 수용과 창작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 "작품은 고정된 전범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문학 활동을 위해 변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34]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도 패러디된 작품이나 다양하게 각색되어진 작품을 통해 수용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문학의 창작에 해당되는 교수, 학습 내용에서는 "작품의 창작 활동은 처음부터 높은

33)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1997.
34)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1997.

수준을 요구하지 말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과 서사문 쓰기 등의 단계를 거치되,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도한다. 특히, 모든 학습자에게 전문적인 문예 작품 창작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35]라고 제시하여 개작, 모작, 패러디를 통한 학습자의 창작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7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문학의 수용과 창작'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 내용 체계 [36]

문학의 성격	◦문학의 개념 ◦문학의 역할 ◦문학의 갈래
문학 활동	◦문학의 수용 ◦문학의 생산 ◦문학의 소통
문학의 위상	◦문학과 문화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문학과 삶	◦문학과 자아 ◦문학과 공동체 ◦문학의 생활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이행되면서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창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문학의 생산'으로 바꿨다. '창작'을 본격적인 문학 작품의 창작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인해 의미의 폭이 더 넓은 '생산'으로 변경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생산물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35)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1997.
36)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2007.

있도록 하였다.

이에 내용체계 또한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었던 영역이 '문학 활동'영역으로 변경되었으며, 하위 내용으로 (가) 문학의 수용, (나) 문학의 생산, (다) 문학의 소통이 위치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재구성하고, 내용 형식, 표현의 요소를 바꾸어 재창조 하거나 작품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로 세부내용을 구성한다고 제시하였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목표 설정 후 내용 바꾸기, 형식 바꾸기, 맥락 바꾸기, 매체 바꾸기 등으로 세부내용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맥락 바꾸기'는 수용자의 처지에서 재구성 하는 활동을 넘어 학습자가 시대,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세부내용으로 보이며 '매체 바꾸기'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효과적으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세부내용으로 보인다.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 내용 체계[37]

문학의 성격 ◦문학의 개념 ◦문학의 역할 ◦문학의 갈래
문학 활동 ◦문학의 수용 ◦문학의 생산 ◦문학과 매체

37) 교육과학기술부 ,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활동'의 하위 내용이 (가) 문학의 수용, (나) 문학의 생산, (다) 문학과 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문학의 생산에서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다루고 있다. 교수, 방법 부분에서도 크게 달리 적용된 것은 없으나 표현 바꾸기, 장르 바꾸기가 세부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07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원텍스트의 제재를 차용하여 내용을 바꾸는 재구성 방식에서 표현 방식을 바꾸어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내용 바꾸기가 원텍스트와 같은 틀에서 내용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것이었다면 표현 바꾸기는 동일한 제재를 통해 다양한 표현방식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에서 함께 추가된 갈래 바꾸기는 '문학의 성격'에서 학습한 '문학의 갈래'를 재구성 활동을 통해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내용으로 보인다. 시와 소설, 소설과 영화 갈래를 교차하여 재구성함으로서 각 갈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당 갈래에 대한 작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교과서 구현양상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출간된 13종의 문학 교과서에서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을 다루고 있는 단원은 다음과 같다.

<표 4> 교과서별 ‘재구성’ 단원 체계

출판사	단원명
천재문화	Ⅴ.문학의 생산 1.문학 작품의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1) 간격 - 안도현 (2) 독 짓는 늙은이 소설 - 황순원, 영화 -최하원 감독 (3) 운수 좋은날 - 현진건
천재교육	Ⅱ. 문학 활동의 방법 2. 문학의 생산 (1) 작품의 재구성 01. 내용 바꾸기 꽃 (김춘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 02. 갈래 바꾸기 완장 (윤흥길 원작/ 신선희 각색) 03. 매체 바꾸기 동백꽃 (김유정 원작/ 오세영 그림)
천재교과서	Ⅲ. 문학의 수용과 생산 3.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생산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01. 사평역 - 임철우
비상교평	Ⅱ. 문학 활동의 원리 2. 문학 작품 생산의 원리 (1)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01. 어린왕자 - 조세희
신사고	Ⅱ.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의 생산 (1)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
미래앤	Ⅲ. 문학의 수용과 생산 4.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1) 내용과 형식 바꾸기 사랑_ 전봉건 / 징 소리_문순태/ 부끄러움_윤오영 (2) 맥락 바꾸기 초토의 시 15 - 휴전 협상 때_구상

	둥둥 낙랑(樂浪)둥_최인훈 (3) 매체 바꾸기 젊은 느티나무_강신재 저녁 골목에서 _학생작품
지학사(권)	2. 문학 활동의 방법 (2) 문학의 생산 01 허생의 처 이남희 02 시의 비밀 조지훈
창비	Ⅱ. 문학 활동 1.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의 생산 01.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방법
교학사	3. 시의 수용과 생산 - 시 생산 활동 (갈래 바꾸기) 4. 소설의 수용과 생산 - 소설 생산 활동 (맥락 바꾸기) 5. 희곡의 수용과 생산 - 희곡 생산 활동 (갈래 바꾸기) 6. 수필의 수용과 생산 - 수필 생산 활동 (맥락 바꾸기)
교학도서	Ⅱ. 문학 활동 1.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03. 시적 화자와 어조 -학습 활동 (갈래 바꾸기) 3. 극 문학의 수용과 생산 01. 희곡의 본질과 특성 - 학습 활동 (갈래 바꾸기) Ⅲ. 문학과 매체 2. 매체를 통한 문학 활동 - 학습 활동 (매체 바꾸기)
비상교육	Ⅳ. 극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극 문학의 특성 - 생산 활동 (갈래 바꾸기)
지학사(최)	2. 시의 수용과 생산 2. 시적 발상과 심상 - 멀리뛰기 (내용 바꾸기) 5. 수필, 비평의 수용과 생산 1. 수필의 표현과 문체 - 멀리뛰기 (맥락, 갈래 바꾸기) - 도움닫기 (내용 바꾸기)
해냄에듀	Ⅲ. 작품 감상과 쓰기

13종의 교과서 모두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라는 목표 아래 패러디를 활용한 재구성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13종 교과서를 단원 구성 체계에 의해 나누면 '비

판적, 창조적 재구성'을 목표별로 배치한 교과서와 '갈래별 수용과 생산'에 각 갈래별로 재구성을 학습 활동으로 배치한 교과서로 나눌 수 있다.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이 목표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는 8종[38]이다. 창조적 재구성이 목표로 구성된 교과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 한 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단원을 통해 문학의 재구성을 다루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세부내용으로 제시한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바꾸기 등을 그 단원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갈래별 수용과 생산 대단원에 재구성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는 4종[39]으로 갈래별로 수용 - 내면화 -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단원 구성 체계는 각 갈래에 해당되는 수용 및 생산 방법을 집약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갈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재구성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갈래 바꾸기가 주를 이루며 창작활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다. 이 경우 갈래별 문학 작품의 감상, 수용에만 그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재구성 활동은 그 활동을 통해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8) 천재문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비상교평, 신사고, 미래앤, 지학사(권), 창비
39)교학사, 교학도서, 비상교육, 지학사(최), 해냄에듀

지학사(권)의 학습활동 '다가서기'는 이해학습으로 본문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표 5> 지학사(권) 학습활동 다가서기[40]

1. '허생의 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에 나타난 허생은 어떤 사람인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해 보자. (2)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생과,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허생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3) 허생의 처라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질문(1) '이 작품에 나타난 허생은 어떤 사람인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야기해 보자.'는 패러디텍스트 안에서의 허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이 질문을 통해 패러디된 텍스트에서의 허생이라는 인물만을 파악할 수 있다. 원래의 텍스트가 패러디가 되면서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학습자가 비교하기 위해서는「허생전」원래 텍스트의 내용파악이 필요하다. 이 활동에서는 「허생전」원텍스트에서의 허생과 패러디텍스트 속의 허생을 비교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들지만 제재로 설정된 「허생의 처」에 나타난 허생의 인물 유형의 이해를 통해 패러디텍스트 속에서의 허생을 이해 할 수 있다. 질문(2)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생과,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활동은 허생이라는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 또한 원 텍스트와 비교를 해봄으로써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3)은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통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 작품이 왜 패러디가 되었

40) 권영민 외, 문학Ⅰ, 지학사, 2012, p149

는지 또한 왜 패러디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활동으로 패러디의 의의를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학습활동 '깊게 이해하기'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이다. 깊게 이해하기'라는 학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는 내용이나 형식, 맥락이나 매체 등을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생산 능력을 기르고 문학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41]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표 6> 지학사(권) 학습활동 깊게 이해하기[42]

2. '허생의 처'는 박지원의 '허생전'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다음 '허생전'의 줄거리를 참조하여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1) '허생전'을 쓴 박지원의 창작 의도와 '허생의 처'를 쓴 작가의 창작 의도는 어떻게 다른지 추측해 보고, 다음의 창작 노트를 완성해보자. (2) '허생의 처'를 쓴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변형하고나 새롭게 추가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자. (3) 앞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재구성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학습활동 2의 (1)에서 작품의 주제, 주인공, 등장인물 및 성격, 전체적인 구성, 시간적·공간적 배경, 시점, 사건의 초점, 주요갈등을 비교해보는 창작노트를 완성해 보는 활동으로 문학 작품의 생산능력과 문학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에 적합하다. 또한 박지원의 「허생전」과 패러디 된 「허생의 처」의 창작 의도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차이점을 통해 패러디가 주는 효과를 학습할 수 있다. 더불어 실제로 문학을 생산해보는 단계에서도 창작노트를 작성해보는 경험을 통해 문학 생산의 방법으로 활용할

41) 권영민 외, 지학사, p149
42) 권영민 외, 문학Ⅰ, 지학사, 2012, p149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질문(2)에서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변형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라는 물음은 작품이 패러디되면서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다. 패러디는 '변형되거나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또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텍스트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드러날 수도 있고 특정 화자의 입장에서 대변하여 서술될 수도 있다. 나아가 활동(3)을 통해서 학습자들이「허생의 처」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패러디가 주는 효과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표 7> 지학사(권) 학습활동 넓게 생각하기[43]

3. 허생의 처의 생각을 바탕으로 삼아, 그녀가 허생을 떠나 친정으로 간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상상하여 간단히 써 보자.

학습활동 '넓게 생각하기'는 '다가서기'인 이해학습과 '깊게 이해하기'라는 목표학습을 성취한 후 실제적으로 자신의 체험에 적용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작품 생산 활동을 위해 예로 들은 브레인스토밍, 연상과 상상 활동, 이야기 이거 꾸미기, 집단 창작 중에서 친정으로 돌아간 허생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이어서 쓰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활동 3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상상력을 동원하여 뒤에 이어질 내용을 써 봄으로써 문학 작품의 생산 능력과 문학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43) 권영민 외, 문학Ⅰ, 지학사, 2012, p150

<표 8> 지학사(권) 학습활동 넓게 생각하기[44]

4. 당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생의 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허생의 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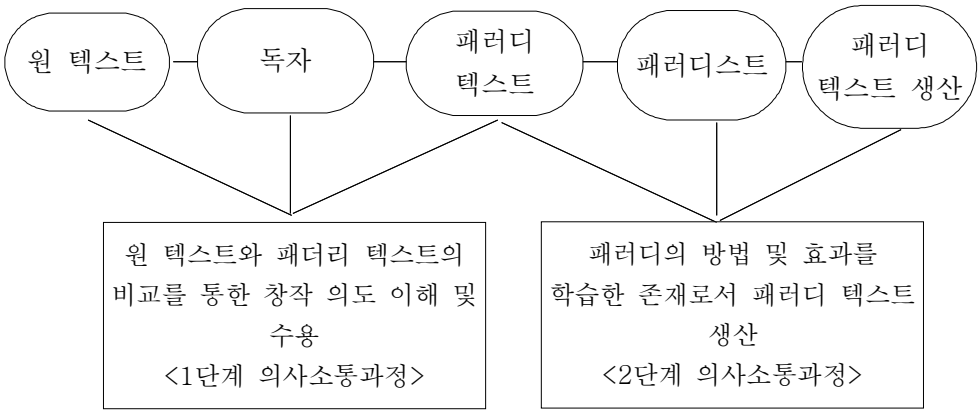
활동 4는 허생의 처의 태도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는 허생의 태도가 주요 관점이 되지만 「허생의 처」에서는 허생에 대한 허생의 처의 태도가 주요 관점이 된다. 허생의 처가 허생을 대하는 태도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작품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시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물음 시대인식의 반영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이 시대 맥락에 따라 어떻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이 내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습 활동에서 '다가서기', '깊게 이해하기'를 통해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의 개별적인 이해와 수용을 위해 구성되었고, '넓게 생각하기'에서 재구성 활동을 통하여 직접 문학적인 언어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하나의 제재를 학습하고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에서 수용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짐을 통해 수용과 생산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이는 토론이나 글쓰기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다. 지학사(권) 교과서에서 '넓게 생각하기' 활동에서 시대 맥락에 따른 허생의 처를 학습자간 토의를 통해 학습하고 있다. 토의활동을 통해 시대에 따라 인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할 수 있지만 활동 3. '허생의 처의

44) 권영민 외, 문학Ⅰ, 지학사, 2012, p150

생각을 바탕으로 삼아, 그녀가 허생을 떠나 친정으로 간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상상하여 간단히 써 보자' 활동과의 순서를 바꾼다면 구성된다면 사회적·문화적 상황맥락을 포함한 패러디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문학 작품 자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작가 - 작품 - 독자'라는 구조 속에서 작용하는 존재로 보는 대한 소통론적 관점에서의 문학은 언어적 표현을 매개로 하여 독립적이고 고정된 의미 영역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상황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작가와 독자의 상호교섭 행위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45] 이는 수용과 생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재구성 활동에서 '원텍스트 - 독자 - 패더리스트 - 패러디스트 - 패러디텍스트 생산 ' 라는 구조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림 2> 교과서 활동위계에 따른 패러디의 의사소통 모델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를 비교하는 활동은 1단계 의사소통과정으로 패러디스트의 창작 의도와 원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변형하여 패러디하였는지

45)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p131

인지하는 활동에 해당된다. 앞서 2단계 의사소통과정은 독자의 수용 능력을 통해 패러디스트가 숨겨놓은 단서를 재조합하고 구조화하여 패러디텍스트의 의미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교과서의 활동 위계를 고려했을 때 2단계 의사소통 과정에서 독자는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의 관계를 이해한 존재로서 패러디스트가 되어 패러디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 지학사(권)의 학습활동 '다가서기'와 '깊게 이해하기'를 통해 학습자는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 사이의 의사소통 요소와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문학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재구성 활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해와 표현의 소통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활동이 선행된 후에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으로 소통의 대상 뿐 만 아니라 상황, 구성원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재구성을 통한 의사소통을 참여하는 학습자는 원전과 소통의 대상 사이에 동일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른 것이 어떻게 동일하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려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문학의사소통의 구조에서 소극적인 수신자(독자)를 적극적인 발신자(문학생산에 참여하는 존재)로 위치 바꿈 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읽고 들은 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다른 청자에게 자신의 방식으로 변형을 가하여 소통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하여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통의 주체가 의미 있게 작용하는 소통을 지향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46] 재구성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생산한 작품을 다른 학습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학사(권) 교과서에서 구현된 재구성 활동을 통한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은 '넓게 생각하기' 4. 당시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생의 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허생의 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토의해보는 활동으로 학습자가 직접 생산한 작품으로 소통으로 이어

46)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p159

질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Ⅳ.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교육의 실제

1.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적 의사소통 교수 · 학습 모형

앞선 교과서 분석에서 학습자간의 문학적 의사소통이 부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어 쓰기 활동과 학습자간 토론 활동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패러디를 활용한 교수 · 학습 모형을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여 수업 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수용 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가 개개인의 반응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모형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를 수용할 때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개별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함에도 제재는 여전히 감상의 대상으로서 감상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는 원텍스트와 패러디테스트의 상호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반응 유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재구성 활동에 적용함으로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문학 텍스트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모형이다.

<표 9>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적 의사소통 교수 · 학습 모형의 절차[47]

과정	주요 활동
반응 준비하기	• 동기유발 • 학습문제 확인 • 학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확인 • 배경지식 활성화
반응 형성하기	• 작품 읽기 •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
반응 명료화하기	•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공유 및 상호 작용 • 자신의 반응 정교화 및 재정리
반응 심화하기	•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 • 일반화하기

반응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통해 반응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작품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 배경 등 을 위해 작품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교육에서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예로는 패러디된 TV광고나 문학 작품을 드라마로 패러디한 작품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패러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패러디된 작품들이 새로운 문학 작품에에 해당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패러디 문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교사는 재구성활동이 문학 생산 방법의 하나로서 문학 생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서 학습자에게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 작품의 학습이 필요함을 인지시킬 수 있다. 더불어 누구나 문학을 생산할 수 있고 재구성을 활용했을 때 보다 쉽게 문학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학습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학습자 자신이 문학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반응 형성하

47)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2010, p99

기 단계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과 의사소통하면서 스스로 반응을 형성하고 작품을 읽고 난 후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패러디는 원텍스트를 바탕으로 재창조되므로 원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된 패러디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작품을 세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는 패러디된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해 보고 원텍스트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도록 지도해야한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반응 형성하기 단계에서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를 토대로 학습자간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이다. 학습자간 토의를 통해 본인이 문학 작품을 읽고 형성한 반응에 대해 자기평가를 할 수 있고 재정리를 할 수 있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를 통해서 같은 유형으로 패러디된 작품들과 연관하여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다른 작품들과 관련지어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 세계나 자신의 삶에 투영해 봄으로써 반응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2. 교수 · 학습 지도안

<표 10> 반응 중심 모형을 적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

일시	○. ○. ○		대상/ 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단원명	대단원	2. 문학 활동의 방법		
	소단원	(2) 문학의 생산 01 허생의 처		
교재범위	P. 143 ~ 151		차시	1차시
수업 목표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수업	반응• 중심 학습법		학습자료	교과서, 유인물

방법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도입	인사	• 인사 및 출석 점검 • 학습 분위기 조성	5분	
	동기유발	•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패러디의 예를 보여준다. • 패러디한 광고와 고전작품이 패러디된 드라마의 예를 영상 자료로 보여준다.	5분	PPT
	학습의 필요성 확인	• “패러디된 작품들이 새로운 문학 생산에 해당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목표확인	•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확인한다.		
전개	반응 형성하기	• 「허생전」의 줄거리를 함께 읽고 패러디한 소설을 소개한다. •「허생의 처」를 읽고 각자 느낀점을 이야기해 본다. • 작품의 주제, 주인공, 시점, 등장인물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배부하고 작성한다.	20 분	· 유인물
	반응 명료화 하기	• 패러디텍스트를 읽고 느낀 반응과 느낌을 4명씩 소집단을 조직하여 공동 창작을 통해 이어쓰기 한다.	20분	

		• 조별로 이어 쓴 내용을 발표한다. •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		
정리	반응 심화하기	• 사회적 ·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된 작품을 소개한다.	5분	PPT

Ⅳ. 결론

7차 교육과정부터 문학 생산교육이 대두됨에 따라 문학을 생산하는 방법의 하나로 패러디 활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판적 · 창조적 재구성'으로 구현되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와 교과서에 구현된 재구성 활동이 시 장르 교육에 치우쳐있고 소설을 활용하여 재구성 활동을 구현한 교과서에서 또한 소설을 재생산하여 쓰는 활동이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재구성 활동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패러디의 개념과 패러디 의사소통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패러디의 시대적 전환 사고를 통해 패러디된 텍스트 「허생의 처」를 통해 원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간의 거리를 거쳐 사회적 · 문화적 상황에 따라 문학이 재해석 될 수 있음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새롭게 대두된 문학 창작 교육과 '비판적 · 창조적 재구성'이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밝혀내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검정된 문학Ⅰ교과서에서 구현된 양상을 '목표별', '갈래별'로 나누어 보았고 13종 교과서 중 소설을 제재로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가 함께 제시되어 재구성 활동을 구현하고 있는 지학사(권)의 학습활동을 문학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습활동 분석을 통해 원텍스트와 패러디텍스트를 학습한 학습자는 '작가 - 독자'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패러디 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독자 - 독자'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활동이 없는 것을 한계점으로 삼았다.

이에 Ⅳ장에서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토대로 실제 수업에서 패러디텍스트를 수용하고 학습자간의 토의 활동을 통해 공동 창작으로 이어 쓰기 방법

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문학 생산 능력을 중요시함에 있어 교과서에 구현된 문학 생산 활동은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실제 ‘문학 생산’이다. 패러디를 활용한 문학의 재구성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학 생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문학 생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패러디의 이런 점에 착안하여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재구성 활동을 통해 함양된 문학 생산 능력이 기존의 문학 작품을 모방하여 생산한 재구성 활동에서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학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목표 아래 구현된 교과서 활동들이 생산 활동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교과서 및 교육과정 해설서

고형진 외, 「천재문화」, 『문학 Ⅰ』, 2012
권영민 외, 「지학사」, 『문학 Ⅰ』, 2012
김윤식 외, 「천재교육」, 『문학 Ⅰ』, 2012
박영민 외, 「비상교육」, 『문학 Ⅰ』, 2012
박종호 외, 「창비」, 『문학 Ⅰ』, 2012
유병환 외, 「비상교평」, 『문학 Ⅰ』, 2012
윤석산 외, 「교학도서」, 『문학 Ⅰ』, 2012
윤여탁 외, 「미래앤」, 『문학 Ⅰ』, 2012
이숭원 외, 「신사고」, 『문학 Ⅰ』, 2012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문학 Ⅰ』, 2012
조남현 외, 「교학사」, 『문학 Ⅰ』, 2012
조정래 외, 「해냄에듀」,『문학 Ⅰ』, 2012
최지현 외, 「지학사(최)」, 『문학 Ⅰ』, 2012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1997.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2007.
교육과학기술부 ,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2009.

2. 단행본

Hutchen, L,「패러디이론(김상구·윤여복 역)」, 『문예출판사』, 1998.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삼지원』, 2005.
송경빈, 「패로디와 현대소설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9.
신익호, 「현대문학과 패러디」, 『제이앤씨』, 2012.
이미란, 「한국현대소설과 패러디」, 『국학자료원』1999.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0.

3.학술지

김미영, 「패러디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방법」,『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김상욱,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그 조직화」, 『한국초등국어교육』, 17, 2000
김창원, 「' 술이불작 (述而不作) ' 에 관한 질문 ; 창작 개념의 확장과 창작 교육의 방향」,『문학교육학』 , 2
신헌재, 「문학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대안적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 19, 2006
이연승, 「장르 해체 현상을 활용한 시교육 방법 연구」,『한국시학연구』, 16, 한국시학회, 2006
임성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24, 2007

조광국, 「문학 교과 패러디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3. 학위 논문

강유경(2010). 「서울 1964 겨울」의 패러디 소설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정아, 「패러디를 활용한 수용과 생산의 통합 시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성명진,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손화영(2001).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적 상호텍스트성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록호(1998).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육 방법론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 「문학의 창의적 수용 및 창작 교육적 연구: 『디지털 구보, 2001』의 패러디 양상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인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Parody literature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Park, Nara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icle was created to accommodate commentators simply domesticated the learner to enable creative acceptance and production line way I leveraged the parody.
The seventh curriculum from literature as literature education for production to produce a parody as one of the activities in the curricula and textbooks ' critical and creative reconstruction is being implemented as '. This was implemented in the existing research and textbooks and the reconstruction activity: utilizes a novel genre, but in edu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activities and also in the novel written by reproducing a textbook activity with

almost no reconstruction utilizing a novel text have activities and teaching approach.

A parody of a parody of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chapter Ⅱ structure description. Parody of a parody with the text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accidents 「 huh Saint brother 」 won through a text about critical perspective and through social and cultural distance of the time depending on the situation, said that this could be reinterpreted in literature.

Ⅲ from the seventh chapter the literature emerging creative education and training ' critical and creative reconstruction ' seventh revised curriculum 2009 curriculum, curriculum, revised 2007 how change has been revealed. Based on the revised curriculum 2009 curriculum as black literature Ⅰ from a textbook implemented aspects of the stars ' goals ', ' stars ' saw 13 species divided into textbook branch of fiction, the text is presented with text and parody punishes criminals Yuan reconstruction activities and the Bachelor's (pas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and learning activities of literary analysis. Learning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xt and the parody text won the learning learners ' communication is possible between the writer-reader ' but can take place through a parody ' readers - readers ' communicative activities will not limit between points.

This is based on real-world PBL model reaction in chapter Ⅳ on lessons from disputes between the learner and accommodate the displayed text with a parody activities through joint creative writing

as a way of presenting.

The curriculum emphasizes the literary production capacity was implemented in literature textbooks in production activity is the reconstruction of the ' literary work ' and is ' real ' literary production. A parody of the literature reorganization is a learner to literature produced for the produced literature and one of the ways you can reach easily is the most studied are the parody of this research focus is the United States. But the reconstruction activity capable of producing a literary edification through existing literature produced by imitation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can only be in the issue also exists. ' Literary works can produce "was implemented under goals textbook activities targeting learning production activities activities can give a positive effect for research is needed.